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1~8]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좀 다르다. 혹은 구약의 하나님은 참 두렵고 무섭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심판하시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괴팍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생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초기에도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마르시온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두렵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색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잖게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신 것 같은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이 늘 그런 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면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눈으로 찬찬히 살펴보면 구약의 하나님도 넘치는 사랑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걸 빨리 이해해야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한테 한 대 맞으면 맞았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의 특징이죠. 그런데 왜 맞았는지 이유를 기억하면 제법 큰 아이입니다. 철이 든 거죠. 그런데 때린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알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다 큰 아이죠. 예전에 조그마한 계집애 하나 데리고 있던 엄마가 애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깐 하루는 공갈을 쳤어요. 엄마가 지금 두 시간 나갔다가 들어올 건데 그 시간에 이 공부 다 해 놓지 않으면 오늘 오후에 교회에 안 데리고 간다. 교회 안 데리고 간다는 게 공갈이면 그 집 알만하죠?

그런데 두 시간 후에 오니 역시 안 해 뒀어요. 그래서 엄마가 선언을 했어요.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데리고 간다.” 하며 때놓고 가니 아이가 엎어지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며 난리가 났어요.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러면 안 돼, 아이 버릇 나빠지니까.’ 아이를 매정하게 때어놓고 버스를 탔대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약 10분 정도 타면 되니까. 그 사이에 오만가지 상상을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저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엄마가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교회 도착하자마자 집에다 전화하니 딸애가 웃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웃고 있는지 아세요? 엄마가 엘리베이터 탄다고 문 딱 닫을 때부터 ‘에이, 오늘은 안 되겠다.’ 하고 자기 혼자 잘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살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매달리면 엄마가 약해서 나를 데리고 갈 건데 그 날 따라 엄마가 딱 때놓고 가버린 겁니다. 일찌감치 포기하고 잘 놀고 있는 겁니다. 딸애는 이렇게 잘 놀고 있는데 엄마는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 동안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때린 것도 아녜요. “오늘 너 못 데려간다.” 이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이 엄마의 마음이죠. 애들은요? 엄마는 심각해도 애들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이들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일을 겪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걸 이해하거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겠고 사람들의 죄가 많아 그렇게 혼이 난 것 아니냐? 이 정도 생각하신다면 그나마 조금 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왜 심판을 했는지 이유는 고사하고 그렇게 심판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무 심했다. 너무 잔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엄마가 왜 나를 때렸는지 그리고 때리면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엄마가 날 때렸잖아! 이렇게 말하는 아이하고 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의 얼굴이 너무 흉측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싫어하고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혹시 친구들이 자기 엄마 얼굴 볼까봐 엄마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 얼굴이 그렇게 흉측하게 된 것은 어릴 때 자기가 불에 타 죽을 뻔했는데 엄마가 자기를 구하려고 불길에 들어왔다가 화상을 입게 된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결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흉측한 얼굴이지만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면 좀 철든 아이 같으면 오히려 그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그걸 알고도 자기 엄마 보기 흉하다고 멸시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모른 척 한다면 이런 어떤 면에서 인간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은 너무너무 큰 사랑인데 이걸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섭섭하게 한 것 그것 때문에 늘 불만인 거죠.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를 잘 보여주는 표시인데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못 읽습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천민이 천민이라는 딱지를 떼고 양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민으로 태어난 자기를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양반으로 만들어 주었다면 아니, 양반 대접을 해주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것인데 어렵듯이 짐작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미있게 보신 드라마 '허준' 있었죠?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원래 책이 있었어요. 드라마 작가가 쓴 '동의보감'이라는 책입니다. 3권짜리, 원래 4권으로 기획했다가 작가가 일찍 죽는 바람에 4권은 쓰여지지 않았어요. 미완성으로 남은 1,2,3권이 출판되었어요. 그 1권 첫 항목 제목이 '면천'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니다. 책을 읽어가다 보니까 천민이라는 딱지를 떼어낸다는 뜻이었어요.

허준이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천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의술을 배우는 것 밖에 없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이겨냅니다. '이것만이 내가 천민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천민으로 태어났는데 천민이라는 딱지를 떼어내고 평민이 되거나 양반이 되려면 얼마나 모진 고난을 견디어야 하느냐? 조선시대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같은 사람끼리도 천민에서 양반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과 하나님의 간격은 얼마나 멀겠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끌어 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렸다는 뜻입니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만한 사랑일까요? 천민이 양반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거늘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는 천민과 양반의 관계보다 더 먼 겁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 올리셔서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전부 두들겨 부수면 잘못입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오. 아무도 야단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건데요. 가끔 그런 장면 보면 '깨지 말고 우리 주면 잘 쓸 건데...' 아깝기도 해요. 그런데 다 깨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시든지 뭐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본래 위치가 그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회사에서도 직급이 조금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툭툭 던지는 상사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어떡해요? 애들 말마따나 아니꼽고 매스껍고 속이 쓰려도 참아야죠. 더럽다고 뛰쳐나오면 그 다음의 삶이 힘겨워요. 이런 서러움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곳에서나 아니면 상사가 바뀌어 밑의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밑의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준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존재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평생 감사하고 그 사랑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이해해야 이런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에 고발 했대요.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이 처음에 떨링 하는 말이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그럴 수 있냐?" 그런데 그 내막을 가만히 듣고 나면 표현이 조금 달라집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

몇 해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프로그램에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부인이 몸을 못 쓰는 신랑에게 설탕물만 몇 년 먹었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짝 마른 일이 방송된 겁니다. "야, 독하다 독해!" 전신마비가 된 신랑을 밥 많이 먹여 놓으면 뒤통다끼리를 못하니깐 설탕물만 먹였나 봐요. 그래서 바짝 마른 채로 몇 년을 지냈으니깐 사람들이 많이 욕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독한 여자가 있냐? 그러나 며칠 뒤에 확 바뀌었어요. "그래도 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건강하고 힘 있을 때 부인을 얼마나 학대 했는지 몇 십 년을 학대하다가 드디어 자기 성질에 자기가 못 이겨서 파당 하고 넘어진 겁니다. 그 전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아이고, 마 그것도 싸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전후 사정을 모른 채 나타난 현상만 보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알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이 무엇인가를 알아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귀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그런 심판을 행하셨습니까마는 심판으로 일을 끝내 버렸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통해 다시 그 구원역사를 이어갑니다. 결국은 독생자를 보내서라도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거스르기만 했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 인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적이 언제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세요.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노아시대의 범죄입니다. 6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홍수 심판의 제 1원인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것이 왜 그렇게 잘못 된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해요.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버려진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그리 아름다웠을까요? 이 아름다움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지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속에 있는 신앙, 이런 것은 뒷전에 두고 오직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우스개가 생겼겠어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천국에 문제가 많답니다.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잘 모르겠대요. 하도 뜯어 고쳐서... 우리가 여기에 너무 관심 쓰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거기에 끌려서... 그냥 장가만 갔으면 괜찮은데 중요한 단어는 ‘모든 여자’입니다. 한 사람만 아내로 삼았다면 그래도 문제가 덜 했을텐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정상적인 결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자기 눈에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모든 여자와 잤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쁘기만 하면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졌다는 표현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어느 교수가 이상한 책도 내고 좀 시끄러웠는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발행하는 대구매일신문 사설에 그 교수의 글이 실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신문 방송에 이 양반 이름도 자주 나오고 음란소설을 써서 어찌고저찌고 해도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 분이 쓴 글을 하나 읽고 진짜 놀랐습니다. 핵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려면 온갖 성적 억압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 결혼 제도 없애고, 순결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고, 순결이니 정조니, 나이가 어려서 미성년자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 다 없애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와도 마음대로 잘 수 있고 성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

제가 말은 들었습니다만 진짜인가 싶어, 정말 기절하겠다 싶어 그 신문을 오려서 고등부 아이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한 번 들어봐라. 어떠냐? 했더니 그 중에서 제일 공부 잘 하던 학생이 손을 들더니 한 마디로 정답 때렸어요. “개처럼 살자는 얘기네요!” 명답이에요. 한마디로 개처럼 살자는 얘기예요. 이게 소위 앞서 간다는 사람이 우리 인류의 자유를 위해 외친 소리가 그것이었어요. 그 분이 자기 이론에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쯤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까요? 그런 분이 어떻게 가정을 제대로 꾸려 가겠습니까? 이혼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정신병원 들어갔다는 소리도 들리더니 요즈음 다시 대학에 복직해서 교수 하고 있대요.

제가 신문에서 오려 낸 걸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이런 풍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얼마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야, 참 큰 일 났다. 두고두고 교육용으로 가르치려고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했더니 누가 빙긋이 웃으면서 가르쳐 주대요. 어느 신문이든지 인터넷 들어가서 쳐 보세요. 그 사람 글 쓰여 있는 것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이 정말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차가 철로 위로만 다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한 번 달려 볼래!’ 해서 철로 위로 안가고 옆으로 빠져 나오면 이걸 ‘탈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차가 힘 못 쓰는 겁니다. 어항 속에 있는 붕어가 갇혀 있어서 답답하고 안 되겠어 “나 넓은 세상 가보겠어!” 하고 팡 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것이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차가 언제 제일 자유로우냐? 철로 위에 있을 때입니다. 붕어가 어항 속에서 돌고 있을 때 제일 자유로운 겁니다. 연이 실에 매달려 팽팽하게 날고 있습니다. “난 자유롭게 날고 싶어” 하고 연줄을 끊어 버리면 더 이상 연이 아닙니다. 바람에 날려 갈 뿐입니다. 그 연줄에 매여 있을 때 그 연이 가장 잘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이 때가 제

일 자유로운 겁니다. “하나님 관계없어요, 놔 놓으세요, 내 마음대로 한 번 해 볼게요.” 하고 마음대로 해보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을 때에 정말 행복한 겁니다.

진정한 자유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한 집에서 자유롭게 살면 표현을 바꾸면 서로 왕 노릇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시끄럽습니다. 박살이 나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종노릇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 보셨으면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 초부터 기 싸움을 합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휘어잡으려고 안 해도 될 싸움을 정말 많이 합니다. 뒤에 숨어있는 코치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짓을 빨리 끊고 서로 종노릇 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성문제라는 것이 억압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감추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부부가 이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는 귀한 것이고 성경도 이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문제는 부부의 범위를 딱 벗어나는 순간에 이것은 독약입니다. 부부에게 귀하게 주신 이 선물을 남용하는 순간에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죠.

훗날 가난한 족속들이 전부 징벌을 당하고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주범죄가 성적문란입니다. 그 후에도 사람들이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지면 이상한 병이 온 세계적으로 돌았습니다. 아주 옛날에 퍼졌던 ‘매독’, 병중에 아마 이름은 제일 좋을 걸요? 영어로 VD(Venous Disease), 병명이 우리나라는 매화꽃 매자가 붙었고 영어는 비너스가 붙었어요. 이게 사람 잡는 병이었어요. 고대에 유명했던 사람 가운데 요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후대 학자들이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그 원인을 대부분 매독으로 봤어요. 좀 유명해졌다고 하면 방탕한 생활하다가 매독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었는데 그 후 그 병을 잡았어요. 요즈음은 새로 또 하나 등장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에이즈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특별히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겨 놓은 병이 아닐까? 싫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생령’이라고 했습니다. ‘살아 있는 영’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3절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란 말을 써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육신이 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떠나시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영적인 존재였는데 성적으로 문란해지면서 육체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짐승이더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인간인줄 알고 온갖 정성 다 쏟았는데 알고 보니 짐승이더라고 한다면 얼마만한 실망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령을 만들었더니 이게 육신이 되어 버렸더라? 하나님께서 견디기 어려울 만큼 가슴 아픈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성적 문란이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4절 보세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네피림이란 ‘장대한 자’란 뜻인데 고대에 명치 크고 키 큰 사람은 고대의 권력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력자를 끼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명성이 있었다’란 표현이 우리말로 좋은 느낌이 들지만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악명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권력과 결탁해서 악한 짓을 했더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육체적인 쾌락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권력에까지 몰입해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권력을 등에 업고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니마 5, 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실망감 또는 하나님의 섭섭함이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을 쏟아 붓고,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귀한 존재가 저렇게 되다니... 이 탄식이 정말 어마어마한 탄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현실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비슷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 끌어들이어 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음란죄를 지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여성도와 간음죄를 지어서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세상에! 교인들 돈까지도 상당수 꿀꺽 삼켰네요. 그런데도 힘있는 장로들과 결탁을 해서 곳곳하게 담임 목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합시다. 교인들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목사 자격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곳곳하게 버티고 있다고 쳐 봅시다. 요새 교인들 같으면 정 그렇다면 내가 딴 교회로 가면 될 것 아냐? 하겠지만 옛날에 옮겨갈 교회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픔이 어느 정도일까요? 비유권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비슷했을까요? 이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보시면서 실망한 그 실망이 얼마나 큰지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하셨는데, 심판하셨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시다. 내가 이라고 해서 이 인생들이 개과천선해서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길 것이라고는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죄를 범할 때마다 심판했다가는 씨도 안 남겠다 싶어서 다시는 매를 들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일종의 포기 선언이에요. 인생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또 다시 뭉칩니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위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질 같으면 확 쓸어버리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조용히 소리 없이 일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언어를 혼란케 중지시켜 버렸는데 왜 그런 방법을 썼을까요?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심판당할 짓을 또 하고 있는데 저 인생들을 또 다 죽일 수는 없으니 묘책을 낸 것이 언어의 혼란이라는 기막힌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은 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죠. 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이 방법은 너무나 기막힌 방법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잘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말씀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사실만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너무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은 그 심판의 크기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철없는 아이는 자기가 뭘 잘못 했는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엄마가 날 때렸잖아! 이것만 기억합니다.

매를 든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는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심판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래도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자초하셨는지를 아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